

지구를 감시하는 슈퍼맨들을 만나다!

기상청 지진교육을 다녀와서

오늘은 신나는 날이다. 학교에서 체험활동을 가는 날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체험활동은 궁금했었던 '지진'에 대해 배운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가기 전날부터 가슴이 쿵쾅거렸다.

학교에서 3시간 정도를 달려 기상청에 도착했다. 서울은 여기저기 높은 빌딩이 많아서 계속 마음속으로 '우와~ 우와~' 하면서 왔는데, 기상청 건물은 우리 동네에서도 볼 수 있는 건물이라 조금 실망했다.



이서율

군산 무녀도초등학교 3학년



기상청을 들어서자마자 간 곳은 회의실 같은 곳이었는데요, 그곳에서 지진이 무엇인지,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것을 배웠다. 지진을 가르쳐주시던 선생님께서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말해서 덜컥 겁이 났다. 머릿속으로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운 내용을 다시 떠올려 봤다.

두 번째로 간 곳은 국가지진화산센터였다. 한눈에 펼쳐진 우리나라의 지진관측소가 정말 멋졌다. 그 곳에 계시던 선생님들은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우리나라의 지진과 화산을 감시한다고 하셨다. 기상청직원분들이 지구를 지키는 영화 속 슈퍼맨 같았다. 지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슈퍼맨들이라고 외치고 싶었다.

그다음으로 간 곳은 국가기상센터라는 곳이었다. 뉴스에도 나온다고 하는 여자 선생님께서 일기예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셨다. 일기예보가 복잡하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에 놀랐고, 이제 TV를 볼 때 설명해 주시던 여자 선생님을 발견하면 기쁠 것 같았다.

네 번째로 간 곳은 우리가 직접 기상캐스터가 되어보는 곳이었다. 한 명씩 모두 해본다고 해서 재밌을 것 같았는데, 막상 내 차례가 오자 가슴이 쿵쾅거렸다. 카메라 앞에 서자 내 모습이 TV 화면에 나왔다.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다. 일기예보를 하는 앵커들도 이렇게 촬영한다고 했다. 카메라 앞에 설 때마다 쭈뼛거리는 친구들을 보니 웃기기도 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기상청에 들러 기상청 바깥에 있는 기계들을 둘러

보았다. 신기한 기계들이 많았다. 이 기계들로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것을 관측한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이번 체험활동은 놀이기구를 타지도 않았고, 자유시간이 많지도 않았지만, 시간 가는 것이 아쉬울 정도로 배울 것이 많았다. 앞으로 누군가가 지진이나 날씨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지구를 감시하는 기상청 슈퍼맨들이 있어서 든든했다. 특히 무녀도는 물고기도 잡고, 김양식도 하기 때문에 날씨 정보가 중요한데, 그 중요한 일을 열심히 도와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기상청에서 일하시는 아저씨, 아주머니! 가끔씩 일기예보가 틀렸을 때, 불평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불평을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



기상청의 하루는
너무 너무 바쁩니다.

쉼 새 없이
지진을 관측하고
날씨를 예측하는
중요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하고 계십니다.

기상청 아저씨의 땀방울 덕분에
오늘도 우리 아빠는
걱정 없이 바다로 나가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녀도 지진관측소는 걱정마세요.
제가 지키고 있을 테니까요.



기상청 아저씨의 땀방울



박재연
군산 무녀도초등학교 2학년

